

# 지방 미분양 해소 금융·세제 규제완화 절실

## 법정부 차원 논의... 이번주 중 구체적 윤곽 앞두고 기대감 전매제한 등 미분양 해소 도움 안돼... 고강도 대책 나와야

정부가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이번 주중 구체적인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미분양주택의 취득·등록세 면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세제 및 금융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또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미분양 현황 및 대책을 논의한 만큼 빠르

면 이번 주중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서 정부가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주택부기지역 등 각종 주택관련 규제 해제 등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좀처럼 줄어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데 이어 이달 말부터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4월 말 현재 광주 미분양주택은 8천9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1천848가구가 '악성'인 준공후 미분양으로 쌓여있는 등 시장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고사 위기로 몰린 지방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방의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는 ▲미분양주택 매입시 취득·등록세 감면 ▲1주택자의 미분양주택 매입시 2주택자에서 제외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이자 등 세액 공제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

출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면서도 정작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밖에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매입임대사업의 요건을 완화할 경우 임대사업 전환을 통한 미분양주택 해소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전세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한주택공사나 캡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미분양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광주 테크노파크 '업그레이드'

## 2012년까지 소프트웨어 중심 2단계 사업 추진 5년간 100억 지원 ... 지역산업 육성 거점 역할

광주 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해까지 테크노파크의 1단계 인프라 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전국 16개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단계 사업은 테크노파크별로 5년간 총 100억원(국비 50, 시비 50)의 사업비를 지원, 지역산업 육성 거점(Hub) 기능을 강화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개 분야, 11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지역산업육성 거점기능 강화는 지역내 혁신주체간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모니터링 기업군 구축 및 관리, 지역산업진흥협의회 운영, 지역산업육성지원 조사분석 및 DB 구축

등 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기술기업 육성은 창업 후 보육지원,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등 5개 과제로 짜여졌다.

광주 테크노파크의 경우 올해 국·시비 18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 4개 과제, 기술기업 육성사업 4개 과제 등 8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지난 98년 12월 설립된 (재)광주테크노파크는 지식경제부와 광주시, 지역대학 등이 534억원을 출연하여 첨단산단내 부지 99천㎡, 연면적 52천㎡(10개동) 규모로 조성됐으며, 62개 기업과 5개 기업지원센터에 70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1차년도 사업평가에서 전국 16개 테크노파크 중 1위를 차지, 국비 1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기아 '로체 이노베이션' 연료비 연 55만원 본다 '경제운전 안내시스템' 주행면

기아차 로체 이노베이션을 예코드라이빙 시스템(경제운전 안내시스템)에 따라 운전하면 연간 최대 55만원의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는 지난 5일 대구 스타디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예코 드라이브 체험행사에 12일 출시예정인 로체 이노베이션 10대를 출품한 결과 공인연비 11.5 km/ℓ 보다 20%가 향상된 13.8 km/ℓ의 최고 연비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운전자로 로체 이노베이션의 공인연비인 11.5 km/ℓ로 연간 2만 km를 주행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기름값은 331만원이지만 연비가 13.8 km/ℓ로 높아지면 1년 연료비는 17%가 줄어든 276만원으로 연간 55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기아차 로체 이노베이션에 적용된 경제안전 운전 시스템은 계기판 내의 경제운전 램프(ECO 램프)를 통해 가장 경제적인 연비로 주행 가능한 운전방향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정속주행 등 경제적인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계기판 내에 있는 녹색 램프가 켜지고 급가속이나 급정지를 할 때는 적색램프가 켜진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기아차 '유로2008 축구 마케팅' 시동

기아자동차는 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UEFA EURO 2008 대회의 자동차부문 공식 후원사로서의 성공적 데뷔무대를 마쳤다. <사진> 유수의 유럽 현지자동차메이커들을 제치고 공동후원사인 현대차와 함께 한국 자동차메이커로서 유럽 최고 축구축제의 자동차부문 공식 후원사가 된 기아차는 유로2008을 통한 유럽 현지에서의 기아 브랜드 알리기에 대성공을 거뒀다.

기아차는 대회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는 개막 직전 유럽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유럽인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을 담아내는 다양한 축구 마케팅을 펼쳐 기아 브랜드에 유럽 현지인들

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기아차 관계자는 "슬로바키아 공장의 성공적 가동과 유럽전략차종 씨드(see'd)의 돌풍으로 유럽시장에서 기아 브랜드 이미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유럽 최고의 축구축제인 유로 2008을 통해 축구에 대한 유럽인들의 열정이 기아차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일명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불리는 프랑스 대 이탈리아 경기를 비롯해 유로 2008의 대표적 게임들의 경기장 A-보드 노출 등 유로2008 대회 첫 후원을 통해 약 3조원의 미디어 홍보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광양 후판기업 유치 행정업무 전폭 지원

### 시장 등 참석 '후판사업 성공기원 워크숍'

이성웅 광양시장 등 광양시 기업지원 관계자와 하남석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을 포함한 임직원 40여명 등 70여명은 지난 5일 광양 백운산수련관에서 '후판사업 성공기원 워크숍'을 가졌다.

광양시의 비전 소개로 시작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후판공장 사업경과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고, 후판공장을 중심으로 광양지역의 조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전략과 30만 자족 도시 달성을 위한 기업지원방안에 대

한 열띤 토론이 마련됐다. 이성웅 광양시장은 광양제철소 후판사업 추진반 소속 직원 30여명을 격려하며 "후판공장은 광양시의 인구 늘리기와 고용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해 광양시가 후판사업에 거는 기대를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정현복 부시장을 반장으로 한 '후판공장 지원반'을 신설해 광양제철소 후판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왔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농협동광주지점 카드회원 100만명 달성

농협동광주지점(지점장 김재철)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카드회원 1만명을 확보해 서울대 지점, 광택시지부와 함께 카드회원 백만인 달성탑을 수상했다.

<사진>

동광주지점은 올해만 2천여자를 추진해 모두 1만6천명의 카드고객을 보유, Leading Branch(우수 영업점) 전국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재철 지점장은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농협에 대한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수익사업이 중요하다"면서 영업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직



원들에게 격려와 함께 분발을 당부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중소공동상표 개발지원

### 대상업체 8곳 선정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지원사업의 대상업체 8곳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광주전남직물공업협동조합, 광주전남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광명섬유,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한국한복공업협동조합,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 ㈜안동일간제비 등이

다. 공동상표 개발지원사업은 중소기업 5개사 이상이 공동으로 활용할 상표를 개발할 경우 상표개발비와 홍보비를 70% 이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

www.hanatour.com

HANATOUR

### 무안공항에서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

대한항공 KOREAN AIR

대한항공 무안-서울(화) 11:40출발-14:30도착

대한항공 무안-부산(수) 11:40출발-12:30도착

**상해**

상해/할주/소주 4일

449,000 원

상해/할주/소주 4일

449,000 원

**왕산**

상해/왕산/할주 5일

599,000 원

상해/왕산/할주 5일

599,000 원

**장가계**

상해/할주/장가계/소주 5일

829,000 원

상해/할주/장가계/소주 5일

829,000 원

**골프**

상해골프 4일

799,000 원

상해골프 4일

799,000 원